

셀예배 교안

「솔로몬의 꿈」 · 열왕기상 7:51 · 다함교회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왕상 7:51상)

권장 소요시간 70~80분 | 인도자는 모임 전 「인도자 사전 준비」와 「본문 배경」을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I. 셀모임 진행 순서

순서	내용 및 시간
여는 찬양	새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5분)
여는 기도	인도자 (2분)
마음 열기	아이스브레이킹 질문 (10분)
말씀 읽기	왕상 7:1-12, 51 함께 낭독 (5분)
본문 배경 나눔	인도자 요약 (7분)
관찰 · 해석 나눔	질문 1~6 (25분)
삶의 적용 나눔	질문 7~9 (20분)
합심기도	기도제목 3가지 (10분)
마무리 기도 · 광고	인도자 (3분)

II. 인도자 사전 준비

- 이 본문의 핵심은 "솔로몬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설계도를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나눔이 인물 비판으로 흐르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 숫자(성전 7 년 · 왕궁 13 년)를 정죄의 근거로만 쓰지 마십시오. 성경 기자가 두 건물을 나란히 배치한 "구조"가 핵심입니다.
- 적용 단계에서 지체들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드러내야 하므로, 인도자가 먼저 자기 이야기를 짧게 열어 주면 나눔이 훨씬 깊어집니다.
- 결론은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자책과 결심으로 끝나면 이 본문은 율법이 됩니다. "지어져 가느니라"(엡 2:22)가 오늘의 복음입니다.

Ⅲ. 여는 기도 (인도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지어 온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펼쳐 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진짜 꿈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Ⅳ. 마음 열기 (10분)

1. 만약 지금 내 집을 새로 설계할 수 있다면, 가장 넓게 만들고 싶은 공간은 어디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최근 한 달 동안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은 일 세 가지를 떠올려 봅시다. 그중 하나만 나눠 주세요.

※ 인도자 참고: 두 질문 모두 "우선순위"를 부드럽게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정답을 요구하지 말고 가볍게 웃으며 지나가되, 나중에 적용 단계에서 이 대답을 다시 불러올 수 있도록 기억해 두십시오.

Ⅴ. 본문 배경 요약 (인도자 낭독용, 7분)

열왕기상 6장은 성전 건축 기사입니다. 7장 13절부터는 다시 성전 기구 제작 기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인 7장 1절에서 12절에 뜬금없이 솔로몬의 왕궁 건축 기사가 끼어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편집 실수가 아니라 성경 기자의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두 건물을 나란히 놓고 독자에게 비교해 보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전 : 7년 (왕상 6:38) / 왕궁 : 13년 (왕상 7:1)

왕궁 단지 구성 — 레바논 나무 궁(무기고) · 기둥 주랑 · 재판하는 주랑 · 왕의 거처 · 바로의 딸의 집

왕궁이 오래 걸린 데는 여러 건물이 결합된 복합 단지라는 현실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 중심에 "재판하는 주랑"(7절)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재판석

은 왕의 절대 권력과 생명 여탈권을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3장에서 "듣는 마음"을 구하던 솔로몬이, 이제 그 재판을 건축물로 세워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8절입니다. 자기가 거처할 궁도 "그 양식이 동일하며", 바로의 딸을 위해 지은 집도 "이 주랑과 같더라"고 합니다. 재판정의 양식이 침실까지, 아내의 집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통치의 언어가 삶 전체를 잠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에는 애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17절은 이스라엘 왕에게 병마를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을 명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셋을 다 어겼습니다. 그가 들여온 애굽은 훗날 여로보암의 피난처가 되고(왕상 11장), 시삭의 침공으로 성전 보물을 빼앗아 가는 손이 됩니다(왕상 14:25-26).

성전 기구를 만든 장인 히람에 대해서도 성경은 굳이 그의 어머니가 남달리 지파 과부였음을 밝힙니다(7:14). 이방인의 손을 성전 건축에 들인 데 대한 정서적 거리낌을 무마하려는 서술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가져다 놓고 그 뒤에 신앙적 명분을 붙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입구의 두 기둥, 야긴("그가 세우시리라")과 보아스("그에게 능력이 있다")의 머리에는 백합화 형상이 얹혀 있었습니다(7:19, 22). 천 년 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8-29절에서 들의 백합화 하나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낫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람이 뉘트로 부어 만든 백합화와, 하나님이 들에 피우신 백합화의 대조입니다.

VI. 관찰과 해석 나눔 (25분)

■ 질문 1 (관찰)

성경 기자는 성전 건축 기사(6장)와 성전 기구 기사(7:13 이하) 사이에 왕궁 건축 기사(7:1-12)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 배치를 통해 독자에게 무엇을 보게 하려는 것일까요?

인도자 참고: 나란히 놓고 비교하게 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말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성경의 서술 방식을 짚어 주십시오. 성경은 솔로몬을 직접 정죄하지 않지만, 배치만으로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게 합니다.

■ 질문 2 (관찰)

왕상 7:7-8에서 반복되는 표현을 찾아보십시오. "그 양식이 동일하며", "이 주랑과 같더라". 무엇의 양식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습니까?

인도자 참고: 재판하는 주랑의 양식 → 왕의 거처 → 바로의 딸의 집. 궁적 통치의 양식이 사적 영역까지 침투했습니다.

■ 질문 3 (해석)

솔로몬은 3장에서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왕상 3:9-12). 그런데 7장에서는 재판하는 주랑을 짓습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건축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동안 그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인도자 참고: 은혜가 액자에 들어가는 순간의 위험. 처음에는 주신 분이 감격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받은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지체들이 자기 신앙 여정에서 비슷한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열어 주십시오.

■ 질문 4 (해석)

솔로몬이 애굽(바로 딸, 애굽식 궁정 구조)을 자기 통치 기반에 들여온 것은 신명기 17장의 왕의 규례를 정면으로 어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어떤 의미의 장소였습니까? 구원받아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 질문 5 (해석)

장인 히람을 소개하면서 성경이 곧이 그의 어머니가 낳달리 지파였다고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미 내려놓은 결정에 신앙적 명분을 뒤늦게 붙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 질문 6 (해석 · 복음)

솔로몬은 재판하는 주랑을 지어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재판석에 앉은 사람은 빌라도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이 대조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인도자 참고: 우리를 심판하실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대신 심판대에 서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눔의 신학적 중심입니다. 여기서 자책이 아니라 감사가 터져 나오도록 인도하십시오.

Ⅶ. 삶의 적용 나눔 (20분)

■ 질문 7

나의 인생 설계도를 펼쳐 본다면, 가장 넓은 방과 가장 오래 공들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입니까, 사람 앞에 인정받는 자리입니까?

■ 질문 8

나는 어디에서 배운 "양식"을 가정과 교회로 가져오고 있습니까? 직장의 성과 언어, 세상의 서열 감각이 가족이나 지체를 대하는 방식에 스며든 적이 있다면 나눠 주십시오.

■ 질문 9

조화(造化)에는 향기와 씨앗이 없고, 물을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 신앙은 조화에 가깝습니까, 생화에 가깝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목마르다"고 정직하게 아뢰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 실천 과제 (택 1)

- 한 주간 나의 시간 사용을 간단히 기록해 보고, 주말에 그 표를 놓고 5 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 가정에서 계산과 판단의 말 대신 축복의 말 한 문장을 매일 한 사람에게 건넵니다.
- 마태복음 6 장 25-34 절을 매일 소리 내어 읽으며, "입히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지어 온 것 중 걷어내야 할 "거품" 하나를 정하고 셀 지체 한 사람에게 알립니다.

Ⅷ. 나눔에 쓸 예화 (요약)

① 상장을 액자에 넣는 순간

아이가 처음 상장을 받았을 때 기쁨은 종이가 아니라 잘했다고 말해 주는 부모의 얼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장이 액자에 들어가 거실 벽에 걸리는 순간, 그것은 기쁨의 흔적이 아니라 증명의 도구가 됩니다. 은혜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재판하는 주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들어간 화려한 액자였습니다.

② 텅 빈 대성당

유럽의 대성당들은 수백 년에 걸쳐 대를 이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안에는 예배하는 성도가 아니라 사진 찍는 관광객이 있습니다. 교회사가 정직하게 증언하는 사실 하나는,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기에 교회 건물은 가장 커졌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도를 무릎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③ 조화와 생화

요즘 조화는 잎맥까지 정교합니다. 시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조화에는 향기가 없고, 씨앗이 없고, 물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는 대신 살아 있지도 않습니다. 겉모습은 완벽한데 목마르다고 말하지 않는 신앙, 그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IX. 합심기도 (10분)

아래 세 항목을 인도자가 읽어 준 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1. 나의 설계도를 다시 펼치는 은혜를 위하여 —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나를 위해 지어 온 것들의 거품을 걷어내게 하옵소서.
2. 조화가 아니라 생화 같은 신앙을 위하여 — 향기와 열매와 목마름이 있는, 날마다 의존하는 신앙을 주옵소서.
3.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셀과 가정을 위하여 — 재판정의 언어가 아니라 은혜의 언어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X. 마무리 기도 (인도자)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짜 꿈이 어디에 있었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왕궁도 다 무너졌지만,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성전 삼아 헐리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 가십니다. 우리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화려하지 않아도 살아 있는 신앙, 향기 나는 신앙으로 자라 가게 하옵소서. 함께한 지체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고, 다음 모임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침 축도 · 참고

※ 셀모임은 목사의 축도 대신 다음 축복기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